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담 당 부 서	주력산업과	과 장	허정완(☎ : 229-2840)	
		산업정책팀장	장동기(☎ : 229-2841)	
		주 무 관	노국화(☎ : 229-2843)	
제 공 부 서	홍보실(이상홍·김상윤 ☎ 229-2062~4) / 누리집(www.ulsan.go.kr)			

전국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기업 울산에서 대도약

5월 30일,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발대식’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울산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5월 30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이하 레전드 50+)’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혁신기관이 주력산업 육성과 관련된 특화 분야를 자율 선정하고, 지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합해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발대식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13개 지방중기청장, 시·도별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주관기관장 및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울산 지역 기업으로는 한동산업, 스마트전자, 오토렉스, 조일공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레전드 50+, 지역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울산시 사례발표, 각 시·도에서 참석한 참여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및 배지 전달식, 업무 협약식, 소원 풍등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 사례발표에서는 허정완 울산시 주력산업과장이 ‘지방시대의 주역, 한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지역혁신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레전드 50+ 울산 사업(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발대식이 울산에서 개최된 것은 울산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격려이자, 지방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이 행사를 시작으로 레전드 50+ 지원사업이 개시되면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 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매년 300억 원, 3년간 총 약 9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125개사의 자동차 부품기업을 선정하고 현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수출 이용권(바우처) ▲창업중심대학 지원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 등 6개의 개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 중이다.

선정이 완료되면 중기부의 핵심 정책수단과 연계해 3년간 특화사업(프로젝트) 예산을 일괄 지원받게 된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노국화(☎ 052-229-2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